

##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 (二十)

칸트氏

鼎言生

### 칸트氏 (二)

『氏의 教育主義』人間은 教育에 依하여 비로소 眞人間이 되나니, 若人間에 教育이 無한 時에는 其形容은 人間이라 할지라도 其實質은 人間이라 稱키 不能하도다. 人間의 形體는 主하여 教育의 關한 바는 아니로되 人間된 實質은 教育으로써 養成할 者임으로, 實히 人間은 教育을 要하는 天賦의 性이 有한 生物이로다. 然즉 今世의 人은 後世의 人을 教育할 者이니 其教育의 目的은 今世를 目的함보다 今世로부터 一層 高尚한 後世의 人間을 養成함을 目的한 것이라. 卽 成年者는 未成年者를 教育하여 自己보다 一層 優等한 人間이 되게 할 것이라. 人間은 賦性 發達의 種子를 有하얏스니 人間이 幼稚한 時는 此種子도 또한 幼稚함으로써, 此를 培養하고 此를 發育케 하여 遂히 完全成熟케 할지니, 是가 云한 바 教育의 任務오 가장 高尚한 事業이라 할지니라.

教育은 人間을 完全케 하는 것이라. 然즉 人間의 完全이라 함은 果然 如何한 意味가 有한 것인가? 此完全이라 하는 意味가 明白치 아니한즉 教育의 眞義가 또한 明瞭치 못한지라. 然한데 此完全이라 함은 一時에 此를 說明키 難하니 從하여 教育의 眞義를 또한 容易히 說明키 難하도다. 教育은 實히 數世를 經하여 비로소 完全에 達하는 것이라. 卽 世를 經함에 從하여 次第로 發達하는 者이니 前者의 經驗은 後人이 此를 受하고, 又 此에 自己의 經驗으로써 多少의 改良 進歩를 加하여 此를 其後人에게 讓하고, 各時代는 前時代의 經驗을 傳하여 此와 如히 次第로 完全함에 從하여 教育의 眞正한 意味를 解함에 至할지라. 故로 教育의 完全이라 함은 宜히 其前途가 遙遠하다 할지로다.

教育은 人間을 完全케 하는 者인 故로 其裡面에는 또한 世界를 完全케 하는 大秘訣이 有하도다. 是로써 教育이 次第로 發達함에 從하여 人間도 漸次

로 完全한 域에 進하며, 其最終에는 世界를 完全케 함에 至하는도다. 故로 此에 依하여 考할진대 教育의 發達을 圖함은 宜이 高尚한 科學的 研究이라. 然함으로써 此 科學的 研究는 甚히 困難한 者로되 遂히 不能한 者는 아니로다. 世界의 歷史를 顧하건대 今日의 狀態는 昔日보다 大이 發達한 者이라. 故로 此勢로써 次第로 進步할 時는 遂히 世界가 完全한 狀態에 到達함은 必然의 理이로다. 然즉 教育 其者를 科學的으로 研究한다함은 困難이 有함이 明白하나 困難이 有함으로써 此를 放棄함은 아니로다. 무릇 科學的 研究의 終極의 目的은 經驗에 在하고 理性은 社會의 經驗上 得키 難한 高尚한 思想 이로다.

今日은 尙且人間이 人間으로써 其眞目的을 達함에 不至한 時이니, 故로 教育도 其發達이 不充分함은 勿論이라. 若教育의 眞理를 發見하고 此에 依하여 人間을 教育한즉 人間은 舉皆 同一한 者로써 平等한 生活을 함에 至하는 것이로다. 因하여 世의 完全이라함은 人間의 能力이 無差別 平等으로써 發達하고, 平等한 智識을 有함으로써 均一한 幸福과 快樂을 受함에 至함이로다. 萬一 人間의 能力, 智識, 幸福 等에 差別과 不平等이 有한 以上은 此를 完全한 教育이라 稱치 못할지라. 如斯히 教育의 眞理를 發見하고 此에 因하여 人間을 教育한즉 盡히 平等한 發達을 圖할지니, 大概 人間은 各其 智識, 能力, 幸福 等の 度를 異히 함으로써 人間으로써 世에 處하여 眞目的을 得치 못함이라. 然함으로 奪하여 教育을 科學的에 研究하고 其眞目的을 發見하기 에 力을 致하여 子々孫々이 此를 繼續하여 努力할지라. 故로 教育의 主義는 國家主義가 아니오 社會主義가 아니며, 個人主義가 아니오 宇宙主義가 是이라. 卽 教育은 一國家, 一社會, 一個人이라 云하는 觀念을 離하여 世界에 處한 人間을 完全히 教育하여 總히 平等的 生活을 圖치 아니함이 不可하니, 其 教育主義에 對하여 主眼될 者를 擧하건대

第一, 人間으로써 品行이 方正하며 溫良從順케 할 것.

第二, 智識을 與하여 能力의 發達을 圖할 것.

第三, 社會에 有用한 人物이 되게 할 것.

第四, 道德을 實行하는 善人이 되게 할 것.

以上の 四條는 教育의 大主義이라. 然而教育을 實際에 또한 凡然치 못할 것이라. 然이나 一時的, 機械的으로써 原因과 結果에 注目치 아니하고 오즉 目前의 幸福을 目的으로한 教育은 本是 一定한 主義가 無하고 一定한 準則이 無함으로 其智識의 後世가 無한 것이라. 故로 理論과 技術을 平行치 아니 함이 不可하니, 理論에 根據한 教育은 一定한 主義와 一定한 目的이 有함으로 其教育의 結果는 一時 이에 止하는 바 아니오, 後世의 文明에 基因이 되

는도다. 此等の 目的을 達키 爲하야 教育의 方法을 看護와 教育(俠義)으로  
分하며 教育을 更히 訓練과 教授 二者로 分할지니라.